

001 개울가에



수리학교
금당초등학교(경기 여주시)

팀장
이재성

멘토
김신일 조가희 오정하 이유진 최은결

꼬물꼬물 올챙이가
개구리로 탈바꿈하듯,
'개울가에'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변화!



대화는 마음을 여는 열쇠다

우리 팀은 프로그램 진행 틈틈이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 6명이라는 다소 적은 멘토들로 구성된 우리 팀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밖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팀원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잘 풀어나갈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이재성 팀장**

“멘토의 입장으로
참가했음에도,
많은 배움을 얻어가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



교육기부, 강력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긴장 되었다. 그러나 직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긴장보다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해주고 싶다! **최은결 멘토**

아이들의 순수함에 치유받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아이들** 덕분에 '봉사활동 중 하나일 뿐' 이라고 생각했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를 줄만 알았던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을 **챙겨주고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깜짝 놀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김신일 회계담당**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다

속속캠프를 시작하기 전, 나는 처음 보는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컸다.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표현에 있어 아낌이 없었다.** 옆에서 도움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내 할일의 전부였음에도, 아이들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나를 찾아와준 멘티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조가희 멘토**



002 갯지렁이



1
썩썩캠프

수리학교
계양중학교(인천 계양구)

팀장
박주원

팀원
최정아 권민수 김수정 유승민 김형규 전진홍
신민재 강의하 양정현 김명덕 최강혁 한상일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3일간의 행복한 시간



미션: 2000년생과 소통하기

처음 학생들을 만났을 때 2000년생이라고 하던 것이 너무 기억이 남는다. 과연 나는 이 어린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로 막막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각은 기우였다. 아이들이 멘토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잘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행복했다. **박주원 팀장**



'교육'을 주고 '치유'를 받다

준비할 땐 막막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짧아서 아쉽기만 한 3일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하나 하나 성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각 프로그램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니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치유 받는 것** 같았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못할 좋은 추억**이었다. **권민수 촬영담당**



아이의 맑은 마음에 나를 비추어 보다

시작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썩썩캠프 기간 동안, 그리고 끝나고 소감을 쓰는 지금은 순수한 아이들 덕분에 **자신을 되돌아본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썩썩캠프에서 만난 **아이들과의 좋은 인연**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전진홍 팀원**

처음 느껴보는 교육의 보람

이번 썩썩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남들에게 무언가 지식을 전하는 것은 처음 해보는 일에서 준비하는 데 힘든 점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이해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김명덕 팀원**



“ 썩썩캠프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했던 순간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003 겨울썩애



수리학교
홍원초등학교(경기 평택시)

팀장
정지원

멘토
김기남 임진욱 김가혜 류희수

소통·배려·나눔의 작은
변화가 모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로 이어지다!



교감, 간단하지만 익숙지 않았던 것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캠프지만 남부럽지 않은 조원들을 만나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참여하고 즐긴 것 같다.** 아이들과 눈 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생각을 마음을 나누는, 간단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진정한 교감을 배운 거 같아서 기쁘다. 어느 누구보다 **순수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지원 팀장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자 ‘교육’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에서의
‘교감’이 되었다.”



사랑 릴레이를 기대해!

아이들과 함께 했다는 자체가 소중한 경험이었다. **‘창의적 인재’**라는 단어를 아이들의 눈과 입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를 공유함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었던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멋진 아이들이** 되었으면 한다. 김가혜 멘토



아이들과의 따뜻한 추억썩애

3일 동안 아이들과의 따뜻한 추억은 언제까지나 **내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나를 밝혀줄 것이다.** 최고의 팀원들과 썩썩캠프를 함께 하게 되어서 성공적으로 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다. 다음에도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임진욱 촬영담당

‘멘티’로부터 얻은 배움



교육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갔지만 오히려 많은 점들을 배우고 오게 되었다. **아이들의 기발한 창의력**을 보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 가운데에 있던 몇몇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챙겨주고 활동에 참여시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협동과 배려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류희수 멘토





수리학교
지곡초등학교(경기 용인시)

팀장
최명빈

팀원
손지혜 원유진 강아임 성남희 이병철
임대영 정동길 문지희 하지형

'너'와 '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기부, 그 시너지 효과를
몸소 경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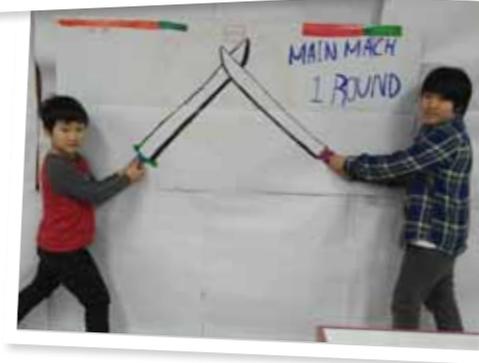
교감의 사각지대 없애기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이 소외되는 아이 없이 모두가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각 조당 선생님 한 명씩을 배치하여 선생님 한 명당 5~6명의 아이들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덕분에 조별 멘토가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프로그램에 소외되는 아이 없이 진행이 잘 되었던 것 같아 만족스럽다. **최명빈 팀장**



나눔을 통해 얻은 예상치 못한 수확

'나'와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교육기부의 취지에 걸맞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수혜학생뿐만 아니라 나도 한 층 성장함을 느꼈다. 프로그램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까지 옮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 팀원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원유진 부팀장**



직접 부딪혀보가 친까진 판단 유보!

쑥쑥캠프를 통해 **한 뼨 더 자란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며 진행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이 너무 똑똑했고,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질문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기부의 보람을 느꼈다. **김희주 멘토**



“**일방적이고 딱딱한 교육과 구분되는 쌍방향적이고 유연한 교육, 그것이 바로 쑥쑥캠프다.**”

함께 했을 때 더 의미 있는 것

우리 팀은 특히 많은 과학실험을 준비했다. 리허설 때 보았던 것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보니 다시 한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순수하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걱정은 사라지고 나 또한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다.**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과도 깊은 정을 나누었고 팀원들과도 더 소통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강아임 멘토**





수리학교
은어송중학교(대전 동구)

팀장
이슬기

팀원
박태연 조성빈 박장흠 백록담 박한솔
임솔빈 백지우 최서진 정하은 권근영
최동현 박준 김용희

모든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쏙쏙캠프를 만들다!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

사전 교육을 통해 멘토라는 개념을 팀원들에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교육현장에 들어가게 한 덕분에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정이 들어 '학생들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변화, 그것은 바꾸는 것.
쏙쏙캠프는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임기응변이 필요해!

학생과 교육 여건이 상당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캠프의 프로그램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에 따른 추가 지출이 생기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캠프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간 것은 없었다.

경험으로부터 얻은 산지식, 그 놀라움!

쏙쏙캠프는 내게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줬으며, 나는 그 놀라운 배움으로부터 얻은 감동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경험으로부터 얻는 산지식의 생생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때문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이 나타내는 창의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슬기 팀장



소통과 사진, 그 상관관계

이번 쏙쏙캠프에서 촬영담당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피하는 눈치여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학생들과 점점 더 친해질수록 학생들도 마음을 열고 촬영하는 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포즈까지 취해주어 수월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결국 친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박장흠 촬영담당



1
쑥쑥캠프

수리학교
봉개초등학교(제주 제주시)

팀장
홍지은

팀원
정성문 이윤서 구자현 이지원 최혜련
김동연 문영지 이강욱 박종찬 신솔 여옥희
김규리 백경렬 김수민 김혜지 신지예

추억 그리고 재미,
'국인'이 생각하는
조금 다른 교육!



“아이들의 시선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 쑥쑥캠프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생에게 교육기부란?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꼭 해봐야 하는 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으로써 팀을 이끌며, 팀원의 화합과 협동력 그리고 팀내의 분위기 향상을 위한 팀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제주도 봉개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많이 감동 받았습니다. **홍지은 팀장**



아이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다

쑥쑥캠프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아이들의 순수함이었다. **사회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어린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이젠 저렇게 순수했던 시기가 흘러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얻는 2박3일**이 되었다.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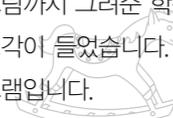
꿈에 확신을 심어준 경험

미래에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평소에 교육봉사를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쑥쑥캠프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예쁘고 착한 아이들과 좋은 쑥쑥 팀원**들과 함께 해서 정말 즐겁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교사가 꼭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 더욱 값진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힘으로 일군 것들

팀장님의 노련함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되었기에** 쑥쑥캠프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준 학생들을 보면서 **짧고도 긴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학기 지원하여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수혜학교
중대초등학교(서울 송파구)

팀장
김지현

팀원
정혜진 김혜진 조희원 오민주 공지수
박보영 이수림 강다애 조명희 강현진
유지혜 최경희 김송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좋은 사람들이 뭉쳤대!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우리만의 비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꿈나무 프로그램, 즉 런닝맨 프로그램이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조별 활동으로 **아이들의 경쟁심과 협동심을 적절하게 유도**하였던 것이며, 또한 성취했을 경우 간식 등의 상품을 배부해줌으로써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준 것 또한 잘한 점이었던 것 같다.



다음 도전을 위한 피드백

처음 참여하는 초등학교 대상 교육기부 활동이라 걱정이 많았다. 좀 더 오랜 기간을 두고 봉사활동을 했더라면 더 추억도 많이 남길 수 있고, 경험도 더 많이 쌓였을 텐데 3일 뿐이라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교육기부 활동에 기회가 또다시 주어진다면, 그런 점을 보완하여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활동을 하고 싶다.** 조희원 멘토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서

아이들의 여러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도 저랬나?'** 다시 회고해 보며 나조차도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아이들이 다시 보고 싶다. 강다애 멘토**



“교육기부를 통해 오히려 아이들에게 순수함과 희망을 배웠던 것 같다.”

점점 진화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다!

밑에 동생들이 2명 있어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마냥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을 다루는 것이라 동생들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 조금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참여하니 **점점 더 능숙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뿌듯했다.

이수림 멘토



수리학교
석문초등학교(충남 당진시)

팀장
김빛나라

팀원
정명훈 장지연 신재경 송동환 김민지 장지혜
김예원 이가영 서연주 신호섭 이용민 김은영

꿈을 찾는 아이들에게
야심 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특명! 친구를 찾아라

‘소통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 프로그램**이라 좋았다. 방향성을 잘 잡는다면, **서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처음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겨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즐거움

3일이라는 시간 너무도 짧게 느껴졌다. 매일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촬영을 담당했기 때문에 함께 준비했지만 수업을 직접 진행하진 못한 점도 아쉽다. 하지만 모든 학년의 수업에 조금씩 참여하고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우리 팀원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장지연 촬영담당**



아이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멘토링은 몇 번 해보았지만, 돈과 봉사시간을 떠나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 교육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지, 아이들은 내가 본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도 **훨씬 사랑스럽고 귀여워 보였다.**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송동환 멘토

교육 프로그램도 맞들면 낫다

꽤 많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부터 세부 요소들을 정해 나가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들도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니 결국은 해결됐다. 한 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수리학교
염포초등학교(울산 북구)

집장
문아름

집원
정승훈 권윤경 윤예빈 박소영 두지영

아이들의 꿈에
푸른 날개를 달아줄
우리들의 도전!



재미있는 별명, 적극적인 참여

각자 맡은 역할(**이름이, 나눔이, 지킴이, 질문이**)과 이름을 명찰에 적어서 3일 동안 서로서로 학생들의 이름을 잘 불러주고, 역할을 부여해서 맡은 활동에 참여를 잘 하게 했던 부분이 성공적이었고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의 캠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빨간 날에는 어떤 사연이?

빨간 날에 얽힌 이야기는 국경일에 대한 **'배움'을 주제로 한 창의적 활동수업**이었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5학년이다 보니 좀 더 **재미있고 활동적으로 수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짧아서 '몸으로 움직이며 좀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국경일에 대해 접근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가슴 따뜻한 선물을 받다

학생들과 멘토들이 **3일 동안 너무 정들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끝나고도 집에 안가고 놀자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내년에도 학교에 속속캠프하러 오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팀원들은 너무 고마워하고 행복해했다.



“교육기부는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서로 배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민한 만큼 깨닫다

유의미한 교육활동을 계획하는 데에는 많은 고민과 생각이 필요했고 이러한 준비과정 속에 때때로 어려운 점도 많았다. 하지만 2박 3일간의 캠프를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어 가면 좋을지, 또 어떻게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저 또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윤예빈 멘토**





수리학교
미탄초등학교(강원 평창군)

집장
안재형

집현
남연주 권경연 이가현 이병욱 배철오 손예은
윤태균 양해리 김소원 김다혜 지수연

삶, 사랑, 사람의 옛말 사.르,
그렇게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이들 변화시키는 비결, 바로 진심

캠프 프로그램 활동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던 아이들도 **진심으로 다가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공감하다 보니 어느새 그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2박 3일 동안 나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 했으며 반항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아이들도 캠프에 적극 참여하도록 변화시킬 수 있었다. **안재형 팀장**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매우 좋은 경험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걱정을 무색하게 만든 아이들

행여나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썩썩캠프! 하지만 미탄초 **아이 들은 우려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 아주었고,**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는 것은 물론, 정리 정돈까지 스스로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배철오 멘토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멘토'들

이번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더 배워갈 수 있었다. 아이들도 이번 썩썩캠프를 통해서 성장했겠지만 그보다 저희 봉사자들이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권경연 촬영담당**

결코 어리지만은 않은 어린이

썩썩캠프를 하기 전의 난 막연히 초등학생 친구들을 어리게만 생각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할 지 몰랐다. 하지만 2박 3일간의 활동을 통해 나보다 **어리지만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과 또한 소통하는 법을 깨달았다.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소통**은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병욱 멘토**

